

문교부가 도서관에 대해 해야 할 말

李重漢, 서울신문논설위원·본지 편집위원

행정개혁위원회의 최종정리에서도 결국 공공도서관업무는 문교부에 남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신설되는 문화부로 이 기회에 옮겨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 10년쯤 우리의 도서관은 정체성을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는 아쉬움을 갖는다.

왜 문화부가 나온가 하는 이유는 기실 단순한 것이다. 문교부에 그냥 있다가 지고서는 그동안의 문교부역사가 증명하듯이 무려 180여개의 공공도서관이 책을 사지도 빌려주지도 않는 무의미한 건물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도대체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주사급 1명이라는 구조마저도 바뀔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조로부터 빠져나와 새로운 어떤 계기에 개선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면 다소간 도서관이 사회적으로 정상화되리라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문화부만들기案에서는 도서관업무만 받을 수 있다면 프랑스형식으로 '도서·독서국'쯤을 창출해 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도서관업무가 어느 부서에 있느냐 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공공도서관에서 국민들에게 읽을 책을 공급해주지 않으면서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가라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다. 이제 세상의 도서관

들은, 책을 가지고 앉아서 읽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버스에 싣고 들고 다니며 읽으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책만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면 너무 문화적 시야가 협소하다는 생각에서 모든 문화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문화센터로서의 도서관'을 또 지향하고 있다. 도서관엘 가면 전시회도 있고 공연물도 있으며 비디오 프로그램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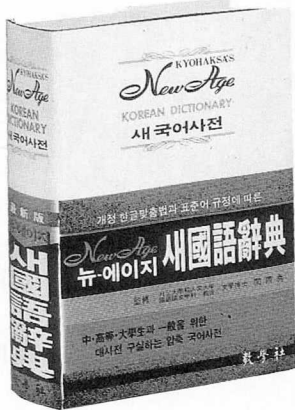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그저 '읽으라'고만 말한다. 네돈으로 내가 사서 읽으라는 요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또 누가 읽기감수성교육과 읽기습관을 증진시키는가. 문교부는 이 일을 맡아가지고 교육만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창구까지 마비시켜온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문교부는 도서관을 다시 거머쥔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야 옳다.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9월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 내)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48호(9월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教學社에서 펴낸 「뉴에이지 새國語辭典」(정가 9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1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 서사시집인 「南海讚歌」(1952)는 시인 金容浩씨(1912~1973)가 썼다. 이 시집은 한국역사의 어떤 사건을 다룬 것으로 유명한가?

- 1. 임진왜란

- 2. 병자호란
- 3. 병인교란

문제2

조선 숙종 때 金萬重의 작품으로, 1914년 永豊書館에서 新 활자본으로 나왔던 이 한글소설은 숙종을 참회시키기 위해 쓴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인가?

- 1. 謝氏南征記
- 2. 九雲夢
- 3. 西浦漫筆

문제3

「古文眞寶」는 중국 先秦 이후부터 宋代까지의 글을 모은 책으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읽혀져 왔다. 이 책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1. 小說集
- 2. 詩文集
- 3. 名言錄

문제4

모파상(1850~1983)의 대표작 「여자의 일생」(Une Vie)은 자연주의 소설의 전형적 작품으로 유명하다. 그는 10년의 문단생활을 통해 6편의 장편과 300여편의 단편소설을

내놓았는데, 다음에서 그의 작품이 아닌 것은?

- 1. 「벨 아미」
- 2. 「죽음과 같이 강하다」
- 3. 「성 앙트완의 유희」

제44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4호(7월20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146통, 이 중 정답은 105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① 「創造」

우리나라 문학사상 최초의 동인지인 「創造」는 1919년 2월, 일본 東京에 유학중이던 金東仁 등이 발간했다. 한국순수문예지의 효시로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

2. ① 신라

「東文選」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성종 때까지의 詩文을 엮은 책인

데, 성종 이후의 시문은 종종 때申用漑가 속편으로 15권을 엮어냈다.

3. ② 동물시집

낙타 등 동물을 제재로 해서 30편의 시를 수록한 시집으로 유명하다.

4. ② 영국 런던

1955년 8월27일, 영국 런던의 프리트 스트리트 107번지에서 맥워터 형제의 편찬으로 198페이지짜리 「기네스북」이 창간되자, 곧 베스트셀러가 되어 폭발적인 발행고를 보였다.

당첨자

- 김옥진(경남 마산시 서성동 84번지 8-3)
- 이재승(인하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3)
- 이계숙(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366 가평군립도서관)
- 이충우(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272-15 이철원씨택)
- 이재섭(서울 중랑구 면목3동 449-9,21/2)

출판저널

통권 제46호/1989년 8월 20일 발행

발행인—鄭鎮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登秀
편집주간—李勝羽
기자—金芝媛 車昌龍 洪賢淑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광고—梁承杓 崔兌源
李義天 金依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대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식사

출판저널—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沈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慎鍾廈	安秉永
安輝瀟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瑗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元靛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錫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호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호분 단위로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료 거처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